

해남군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국정과제 채택 건의

국가균형성장위원회 정책간담회 명현관 군수 위기극복 구상 제시 박수현 위원장 "적극 지원 하겠다"

해남군이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의 국정과제 채택을 공식 요청하며 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해남군은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선도모델 조성'의 국정과제 채택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정책간담회는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오현민 국립순천대학교 기획처장, 권봉오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남군이 추진하는 '농어촌수도 선도모델'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생존전략으로, 지방대와의 연계를 통해 인구 증가, 정주 여건 개선, 농산업 전환 등의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과 명현관 해남군수, 오현민 국립순천대학교 기획처장, 권봉오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수현 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대학과 연계해 광역권 건의과제를 제안한 사례는 해남군이 최초"라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도 수도권 지원의 단순 분배를 넘어, 지방의 자율적 노력과 결합될 때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남군의 제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6월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군산대학교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농어촌수도추진단(TF)'을 출범하는 등 관·학·연 공동 실험모델 세부사업을 구체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개 기관은 한반도 기후변화 농어업 실증의 최적지인 해남군의 농어업·농어촌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역량을 결합한 지역주도형 공동협력사업을 지역성장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R&D)·실증의 농수산업 첨단산업화, 기후위기 시대 글로벌 식량안보 전조기지 구축, 농·어업 전후방 연관산업 구조화, 농어업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농산업역량 강화, 국내외 다양한 인구 유입이 가능한 교육 정주도시, K-농어업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선도모델 육성 등 전남 서남해권 농수산업의 신성장산업화를 위한 민·관·산·학·연 혁신지구 조성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해남군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현 거점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지역 주도 혁신모델의 선도사례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이 보유한 자연적, 산업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구체적 실행모델을 제시했다"라며 "농어촌수도 선도모델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치유페이 참여 동행업소 선봉기 100대 취약계층 지원

'완도 치유페이'에 참여하는 동행업소 대표들이 수익금 일부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해 감동을 주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2025 완도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완도 치유페이' 정책이 관광·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나눔운동으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완도 치유페이'에 참여하는 '착한 동행업소' 대표들은 최근 완도군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선봉기 100대(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해당 선봉기는 '완도 치유페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로 마련했다.

나눔에 동참한 업소는 달소윗, 대한물산, 리베라펜션, 아내의정원, 완도회타운, 천지가전복, 다누림기념사, 동고리의아침, 세계로수산, 완도어전, 이엘피디자인 등이다.

'착한 동행업소'는 관광객이 완도치유페이를 매장 이용 시 10%를 할인해주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다.

'완도 치유페이'는 완도를 찾는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차 포인트 등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관광 인센티브 제도다.

지난 6월 말 기준 '완도치유페이' 혜택은 입은 관광객은 총 9320팀으로, 소비 금액은 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5억8000만원 이상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호응 임대건수 전년 대비 5% 증가

영암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기계 임대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1~6월까지 총 3533농가에서 4583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7064일 동안 4078ha를 경작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임대건수는 5% 늘었으며, 작업면적과 임대농가도 각각 8%, 7% 증가했다.

영암군은 이같은 성과가 신규 이용 농가 증가, 영농 현장 고수요 기증 배치, 영농부산물 파쇄 수요 증가, 임대료 감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암군은 농용굴착기, 관리기, 무선전동가위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기계를 집중 배치했다. 또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감면 정책으로 올해 누적 임대료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 감소했지만 이용 건수는 증가해 농가 영농비 절감에 기여했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위기, 인력부족 등 농업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농기계임대 동부사업소가 완공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농업일손 부족 해결과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세안종합병원 장애인·취약계층 의료지원 나선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 체계적 강화

세안종합병원(이사장 강상진)이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장은채)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동안 섬 지역을 돌며 꾸준히 펼쳐온 '찾아가는 의료봉사'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지역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2일 장은채 관장과 문병호 세안종합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목련실에서 진행됐다.

장애인 그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 및 복지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협의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따라 ▲질병 및 우발적 사고 발생 시 진료 지원 ▲응급 상황 대응 ▲정기 건강상담 및 치료 연계 등을 중심으로 복지관 이용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은채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



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안종합병원 관계자는 "섬 지역 의료봉사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를 실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안종합병원은 그동안 신안군 등 전남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문진료와 이동형 건강검진, 만성질환 조기 발견 활동을 통해 의료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왔다.

이와 함께 최근 첨단 진단 장비를 도입하고 중

합건강검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앞서 세안종합병원은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은주)와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복지현장 종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복지 증진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무료 또는 우대 건강검진 ▲질환별 전문의 상담 및 진료 연계 ▲사회복지사 대상 건강교육 및 정기 검진 ▲찾아가는 의료봉사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철새·자생식물뮤지엄 공립 1종 전문박물관 등록

신안군은 흑산도 '신안철새박물관'과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공립 1종 전문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됐다

고 24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두 박물관이 신안군 생태문화자원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안철새박물관은 국내 조류 박제와 생물표본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수장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흰배줄무늬수리를 비롯해 희귀종 뽕소리 등 800여 점의 조류 표본을 통해 생생한 자연 생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신안자생식물뮤지엄은 804㎡ 규모 전시 공간에 20개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을 갖추고 있다.

신안지역 고유 식물과 희귀 식물, 도서 생태계와 식생 정보를 다채로운 복합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섬 생물다양성 교육에 특화된 전시를 제공한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철새박물관과 신안자생식물뮤지엄이 전시 기능을 넘어 문화예술과 생물다양성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